

전북글로벌특성화고, 성공적 첫발

2025학년도 신입생 특별전형 평균 경쟁률 1.4:1 기록

작년 10곳 선정, 지역사회 연계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전북글로벌특성화고’가 성공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2일 2025학년도 특성화고 신입생 특별전형 원서접수 마감 결과, 평균 경쟁률이 1.4: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날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북글로벌특성화고’는 특성화고를 살리겠다는 전북교육청의 육성 정책에 따라 △신산업·신기술 융합형 △지역 전략산업형 △학교 자체 발전형 등으로 학과를 재구성했다.

먼저, 전북하이텍고가 교명을 수소에너지고로 바꾼 후 이번 특별전형에서 52명 모집에 174명이 지원해 약 3.3:1의 경쟁률을 보였다.

또한 완산여자고는 1.6:1, 전북베이커리고는 1.5:1, 전주공업고 1.4:1, 원광보건고 1.4:1을 기록하면서 지원자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도내 중학교 3학년 학생 수가 2022년 1만7,282명에서 2023년 1만6,128명, 2024년 1만5,448명으로 줄어들고 있음에도 전북글로벌특성화고로 선정

된 학교들의 특별전형 지원자가 증가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다.

대표적으로 전북하이텍고는 수소에너지고로 전환을 앞두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완주 산업단지 내의 대표기업인 한솔케미칼, LS엘트론, 미원상사 등과 채용 협정 협약을 맺는 성과를 이뤘다.

이는 학교와 교육청뿐만 아니라 완주군과 기업들의 전폭적인 협력으로 가능했던 일로,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교육의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어 이리공업고는 새만금 2차전지 산업단지의 연계해 2차전지 분야로 학과를 개편, 올해 첫 신입생을 모집하며 마이스터고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신산업·신기술 융합형으로 전북하이텍고 △지역 전략산업형으로 이리공업고 △학교 자체 발전형으로 완산여고, 진안공업고, 부안제일고, 전북유니텍고, 옥수고, 학산고, 원광보건고, 전주공업고 등 총 10개 학교를 선정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특별전형 지원자 수 증가 추세는 중학생들이 전북글로벌특성화고의 교육과정과 진로에 매력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북 지역의 직업교육과 산업이 상생하는 긍정적인 발전을 기대하며, 지역특화 인재 양성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는 최근 모악산 대원사에서 전 재산을 기탁한 고(故) 최은순·김정숙 기부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추도식을 열었다.

“고귀한 정신, 기억하겠습니다”

전북대 고(故) 최은순·김정숙 기부자 추도식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최근 모악산 대원사에서 전 재산을 기탁한 고(故) 최은순·김정숙 기부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추도식을 열었다.

이에 따르면 추도식은 전북대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생전의 모든 재산을 기부한 두 기부자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1997년, 최은순 기부자는 평생 공주리 행사와 삼바느질터 모은 3억 9,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전북대 장학금으로 기탁했고, 김정숙 기부자는 1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장학금으로 내놓았다.

이번 추도식은 최은순 기부자의 26주기과 김정숙 기부자의 18주기를 기념하는 자리로, 장학금 수여 학생과 유가족, 전북대 발

전지원재단 관계자, 불자회 회원, 그리고 ‘최사모(최은순 기부자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등이 참석했다.

추도식에서 전북대 발전지원재단 박진호 부이사장은 “추도식을 통해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었다”며 “전북대는 앞으로도 기부자들의 뜻을 받들어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학금 수여자인 전예은 학생(경영학과 4년)은 “최은순 기부자님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어 추도식에 참석했다”며 “소중한 장학금으로 학업에 매진해 받은 사랑을 사회에 돌려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문대 RISE 체제 구축

전주비전대 등 7곳 협약 체결

전주비전대학교는 12일 라마다 군산 호텔에서 도내 7개 전문대학(군산간호대학교, 군장대학교, 백제예술대학교, 일광보건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전주비전대학교)이 공동 주최한 전문대학 RISE 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5년부터 실시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이하 RISE) 체계 도입에 따라 지역-대학의 공동위기 극복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응방향을 공유하는 등 RISE 체계에서 지역과 대학, 혁신기관 등이 서로 연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공동 포럼은 전북지역 7개 전문대학이 RISE 체제 전환 공동대응을 위해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남궁문 원광디지털대학교, 전주비전대의 ‘대학과 지역의 아름다운 동행 실현’에 대한 기조강연이 이어졌다.



12일 군산 라마다호텔 2층 길로홀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전환 대응 전문대학 RISE체제 구축을 위한 공유·협업 MOU 및 공동 포럼이 열린 가운데, 전주비전대학교 우병훈 총장을 비롯한 도내 전문대학 총장들이 MOU를 체결한 뒤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NASA 글로벌 캠프 참여학생 만족도 매우 높아

전북자치도교육청 설문조사 결과 93.9점으로 집계돼... 글로벌 역량 키우는 기회 많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중학교 1학년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운영한 NASA 글로벌 캠프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고 나타났다.

12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NASA 글로벌 캠프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 만족도가 93.9점으로 집계됐다.

만족도 조사는 안전교육, 사전교육, 교통편, 숙소, 식사, 일정, 프로그램 진행, 사후교육, 연수효과 등 10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이에 해외연수 운영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99점으로 가장 높았고, 연수효과·안전교육 98점, 교통편·프로그램

진행도 97점 순으로 나타났다.

10월 18~26일 진행된 NASA 글로벌 캠프는 NASA 스페이스 캠프, NASA Goddard Space Flight Center 및 조지워싱턴대학교 방문과 특강, 미국 워싱턴 D.C. 문화 체험, 스미스소니언 국립항공우주박물관 탐방 등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문제해결능력과 창의력을 함양하고, 과학적 사고력과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지난 9일 참조내래 시청각실에서 열린 NASA 글로벌 캠프 결과 발표회에서 한 학생은 “이번 캠프를 통해 인생의 중요한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였다”라고 했고, 다른 학생은 “과학자의 길로 가는 내 인생의 발사체며, 미래를 향한 꿈의 발판이자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학생은 “나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준 경험이었다”며 “내 안의 꿈을 키우고, 그 꿈을 현실로 이룰 수 있게 하는 동력이자 큰 모험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분형심 창의인재교육과장은 “NASA 글로벌 캠프 기간 내내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했다”면서 “앞으로도 세계화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법전문대학원 동문들이 대학발전기금 2380만원 기부

전북대, 진로진학박람회 개최... 고교생 등 2000여명 참여

76개 학과 부스 설치

전공 특성 등 설명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진로 선택을 고민하는 고교생들에게 전공 체험을 통한 진로 탐색과 학과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로진학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북대 입학처가 11~12일 양일 간 진수당에서 마련한 이번 박람회에는 지역 고교생과 교사, 학부모 등 2,000여 명이 참여해 학과별로 설치된 부스에서 각 전공의 특성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대학에선 간호학과를 비롯한 76개 학과가 각각 부스를 설치해 고교생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입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코너도 별도로 마련했다. 이곳에서는 입학사정관들이 직접 2026학년도 대입 전형에 대한 상담도 진행했다.

주최중 입학처장은 “전북대는 고교생들에게 실질적인 진로체험의 기회



11~12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진로진학박람회’가 열렸다.

를 제공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변화하는 입시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년 고교생 초청 진로진학박람회를 열고 있다”며 “올해는 모집단위 광역화 등으로 다소 늦게 열렸으나 내년에는 예년처럼 6월 전후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구강건강체험교실

전주비전대학교 치위생학과는 11~12일 이틀간 지역사회 유치원 원아들을 대상으로 구강건강체험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에는 6~7세 유아 74명이 참여해 스스로 올바른 구강건강관리 습관을 형성하고 싶단 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으로 진행됐다. /장은성 기자

전북형 늘봄 정책 방향·개정 내용 안내

전북자치도교육청, 2025학년도 늘봄·방과후학교 운영 설명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2일 전주학생교육문화관에서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2025학년도 늘봄·방과후학교 학교장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도내 초·중·고교 학교장 757명을 대상으로 2025년 늘봄·방과후학교 운영계획과 주요 개정안을 안내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학교 자율성 확대를 위한 감사 운영(현직교원) 지침 완화 △초·중·고 프로그램 감사료 권장 기준 상향 △감사 관련 성범죄 및 아동학대 사안 처리 절차 명확화 △사유수강권 지원 추천 비율 확대 등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기존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이 늘봄학교로 통합되면서 늘봄지원실장이 배치되고, 단위 학교에 늘봄지원실이 운영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개정안은 법령 개정 사항과 학력 신장을 위한 학



교 현장의 의견이 반영됐다”면서 “늘봄·방과후학교 정책 이해와 청렴성을 확보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공·사 건강보험 데이터와 보험산업 발전방향’

전주대, 보험관련전공 연합학술대회 ‘우수상’ 수상받아

전주대학교 금융보험학과가 2024년 전국대학 보험관련전공 연합학술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12일 전주대에 따르면 지난 8일 대구대에서 개최된 전국대학 보험관련전공 연합학술대회에 대구대학교, 목포대학교, 흥익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서원대학교, 협성대학교 등 전국 대학의 보험 관련 전공 대학생들이 참가해 보험학과 산업계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학술논문을 발표했다.

이에 전주대 금융보험학과 학생팀(오강혁, 이준호, 김영하, 최성유)이 ‘공·사 건강보험 데이터와 보험산업 발전방향’을 주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팀장을 맡은 오강혁(4년) 학생은 “예전부터 선배들이 입상하는 모습을 보고 항상 동경심이 들었다”며 “팀원들



과 함께 참가해 수상도 하고 멋진 추억을 만든 것 같아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현복 학과장은 “건강보험 Big-Data의 활용이 중요한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주제의 논문을 발표한 것이 수상의 비결이었다”며 “늘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금융보험학과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